

참여연대에서 보건복지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보건복지정책방향에 대해 질의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아직은 장관내정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책임있는 견해를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참여연대의 여러분들도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한 저의 답변은 임명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사안별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적절한 기회를 통해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늘 정책수요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맡게 되면 현실 문제는 물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자 다짐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에서 제안해 주신 건설적인 의견들은 저에게 소중한 길잡이가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보건복지정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 임채민

